

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역대 처·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좋은 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환 전 처장(제22대)은 “법제처를 떠나서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현직에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게 된다” 라면서 “법제처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라고 화답했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추명순	(044-200-6521)
		담당자	사무관	송은희	(044-200-6522)